

## 寄與入學制度와 大學의 活路

李 德 浩  
(西江大 敎務處長)

필자는 최근 韓國 大學의 재정 문제가 大學關係者는 물론 일반 國民에게까지도 焦眉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私立大學 財政難 克服을 위한 方法 중의 하나로 寄與入學制度의 필요성을 국제 비교를 통해 力說함과 아울러 조성된 寄與金의 합리적인 活用方案 등을 제시함으로써 大學의 活路를 모색하고 있다.

### 1. 머리말

오늘의 세계는 通常的인 思考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만큼 빠른 속도와 넓은 폭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深度를 가지고 大轉換에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만일 어떤 비범한 예언자라도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했다면, 그는 확실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을 것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앞으로 얼마나 그의 國內 政治上의 지위와 위상을 더욱 높이고 유지해 나갈지 알 수는 없으나, 필자는 그가 主導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東歐圈의 變化와 소련의 大變化 아니 世界의 一大變化는 실로 몇 차례의 새로운 世界大戰으로도 허물기 어려운 人類의 벽을 소리없이 除去해 버렸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그렇게나 격하게 느껴지던 '혁명'이라는 말은 이 世紀의 變化에 걸추어서는 너무나도 弱하고, 그 意味가 너무나도 現

象的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思考가 아니고서는 설당도 표현도 불가능하다.

세계는 오늘날 이러한 대전환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世界 共同의 목표, 人類 共通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個別國家, 個別民族들이 그들의 개별적 목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어떤 나라가 이러한 세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이익과 역할을 크게 하는가에 따라 未來에 대한 그들의 전망과 위상을 그들이 뜻한 바대로 설계하고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세계는 美·蘇의 兩大陣營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時代는 분명 多極化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西歐는 統合되어 世界最大의 勢力으로 제편되고, 여기에 東歐의 짐목까지 예상된다. 21 세기는 太平洋時

대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 中心은 日本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며칠 전 미·소에 이어 세번째로 우주 위성을 발사해 올렸다. 이러한 때에 韓國이 해야 할 未來 준비는 어떠한 야겠는가? 한국은 소련, 중국, 일본이라는 巨大國家들을 이웃에 갖고 있는 나라로서 여러 면에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未來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새로운 現實」의 저자로 세계적으로 注目받고 있는 P.F. 드러커는 21世紀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고, 특히 한 社會의 그리고 한 時代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知性人에게는 이에 걸맞는 思考와 準備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의 著書의 韓國語版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 정책이든 국제 정책이든 그 대의 정책의 기초를 과거의 현실에 두는 일이야말로 한국에 심대한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再論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한 산업 국가로 변모한 한국이, 직면한 엄청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한국의 기업인, 정치 지도자, 학자, 언론인 그리고 모든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은 이미 세계 정치, 세계 무역 그리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의 첫해를 막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 민족의 20세기가 어떻게 평가될 것이며, 동시에 21세기의 韓民族의 운명이 가름되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에 어울리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이러한 점에서 P.F. 드러커의 충고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충고는 우리의 교육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世界 大變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의 어느 한 가지가 突出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우 多急하고 基本이 되는 분야가 教育이다. 이 교육의 성공은 아주 複合的이고 長期的인 것이어서 그야말로 綜合的인 성

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우리의 교육, 특히 大學教育이 21세기 한국의 未來에 희망을 준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大學의 基本機能을 획기적으로 向上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의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을 자체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만큼 크게 높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충족되어야 할 여러 가지 前題와 條件들은 기존의 觀念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次元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에 비하면 오늘의 韓國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러나 보다 냉철히 고찰해 보면 지금까지의 발전은 量的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의 발전도 先進國의 모방을 통하여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우리나라 발전은 한 次元 높은 종합적인 국가적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한 時點에 도달했다. 冷戰의 갈등에서 서서히 풀려나고 있는 世界는 그 대신 새로운 블록화와 새로운 배타적 集團利己主義로 치닫고 있으며, 냉엄한 國家自由競爭時代로 돌입하고 있는 感이 든다. 따라서 우리 韓國은 이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앞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세우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20세기 역사를 有終의 美로 장식하여 21세기를 희망찬 世紀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未來 展望이며, 국제적으로는 2차 세계 대전 이래 後進國에서 先進國으로 진입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世界史의 現實에서 제 일차적으로 先進國에 진입하여 모든 후진 국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未來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으로 비로소 人類共同體에 意味있는 寄與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그 파장은 어떤 것かと 비교될 수 없는 영속적인 성격의 공헌이 될 것이다.

## 2. 私立大學의 財政과 大學教育의 展望

198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81개의 4년제 私立大學이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의 財政을 구성

하는 주된 收入源은 학생 납입금, 재단 전입금, 국고 지원, 기부금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私立大學들은 한편으로는 設立者인 財團이 財源確保라는 점에서 충분히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나 社會가 수천 억원의 재산을 투입하여 나라의 高等教育을 맡겠다고 나선 設立者나 財團에만 모든 책임을 떠맡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二重의 결함으로 사립대학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세계의 大學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째는 設立의 主體가 국가나 혹은 국가의 公共機關인 것으로 西歐에서는 예를 들어 西獨의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오늘날 흔히 社會主義國家들이라고 불리는 共產主義國家들의 모든 대학이 또한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대학들은 전부 國立 혹은 公立大學들이며, 大學財政은 국가의 예산으로 策定되므로 個別大學들이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 둘째로는 많은 수의 대학들이 個人이나 個人團體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일부 혹은 많은 대학들이 국가나 국가의 공공 기관에 의하여 세워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美國, 日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大學財政의 확보가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 私立大學들의 제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에는 1985~1986년 현재 6,495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년제 대학이 3,914 개로 61%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美國은 하바드대학, 예일대학 등 名門私學의 보유로 세계 최고의 私立大學 傳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 대학들의 財政源을 <표 1>에서 살펴 보자.

<표 1>은 私立大가 연방 정부로부터 대학 재정의 약 16%에 달하는 國庫支援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81.6%에는 학생 납입금과 기부금,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 2>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자료로 볼 때 美國 私立大學의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대학 재정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는 종합대학, 기타

<표 1> 미국의 재원별 대학교육비 구성비(1984~'85) (단위: %)

구 분	연 방	주	지 방	기 타
공 립 대	10.6	45.1	3.6	40.7
사 립 대	15.9	1.9	0.6	81.6
평 균	12.4	29.9	2.6	55.1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美國의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39호, p.57.

<표 2> 재원별·설립별 미국 고등교육비 구성비(1984~'85)

(단위: 1,000U.S.\$)

제 원 별	공 립		사 립	
	액 수	%	액 수	%
학 생 납 입 금	8,637,637	14.5	12,635,691	38.7
연 방 정 부	6,309,818	10.6	5,199,307	15.9
주 정 부	26,965,417	45.1	617,593	1.9
지 방 정 부	2,178,761	3.6	208,451	0.6
기 부 금 및 보 조 금	2,188,439	3.7	4,804,184	14.7
용 역	11,967,500	20.7	7,734,412	23.7
기 타	1,536,586	2.6	1,478,897	4.5
계	59,794,159	100.0	32,678,537	100.0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美國의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39호, p58.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美國의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39호, (1989년 7월), p.55.

〈표 3〉 미국 고등교육 기관 학생 1인당 연 평균 납입금

(단위 : U.S.S)

구 분	1984~'85		1985~'86		1986~'87	
	공 립	사 립	공 립	사 립	공 립	사 립
총 합 대 학	1,386	6,843	1,510	7,450	1,590	8,060
기타 4년제 대학	1,117	5,135	1,200	5,550	1,270	6,000
2년제 대학	584	3,485	620	3,760	650	4,060
평 균	971	5,314	1,040	5,750	1,100	6,230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美國의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39호, p.59.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 종합대학만을 독립시켜 고찰하면, 그 결과는 앞의 〈표 2〉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美國의 私立大學은 예산의 61.3%를 학생 납입금 이외의 財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부금 및 보조금(14.7%)과 기타(4.5%)가 1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私學이 상당한 정도로 大學財政을 外部로부터 지원받는 길이 制度的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표 3〉에서 보면 미국 私立大學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납입금은 1984~'85년에 6,843 달러, 1985~'86년에는 7,450 달러, 1986~'87년에는 8,060 달러이었다. 이것을 우리 화폐(700:1)로 계산하면 각기 479만 원, 521만 원, 564만 원이 된다.

만일 이 납입금을 美國의 우수한 名門 私立大學에 국한시켜 産出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일반 4년제 종합대학의 평균 등록금으로만 보아도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몇 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납입금이 미국 대학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8.7%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美國 私立大學의 예산 내용과 규모를 짐작케 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私立大學들의 재정 형편이 얼마나 영세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금액상으로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등록금이 한국 대학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0%를 넘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일대 전환을 시도하여 때가 늦기 전에 敎育立國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한다.

〈표 4〉 일본의 설립별 대학교육 기관

구 분	학교 수(%)	학 생 수(%)	
대 학	국 립	95(20.4)	461,427(24.5)
	공 립	36( 7.7)	55,717( 2.9)
	사 립	334(71.8)	1,362,338(72.4)
	계	465(100)	1,879,532(100)
단 기 대 학	국 립	37( 6.8)	18,195( 4.6)
	공 립	52( 9.5)	20,924( 5.2)
	사 립	459(83.3)	357,336(90.1)
	계	548(100)	396,455(100)
고 등 전 문 학 교	국 립	54(87.1)	41,597(84.6)
	공 립	4( 6.5)	4,140( 8.4)
	사 립	4( 6.5)	3,437( 7.0)
	계	62(100)	49,174(100)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日本의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40호, p.51.

다음으로 일본의 私立大學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현재 일본에는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4년제 일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세 종류의 高等教育機關이 있다.

日本의 4년제 대학은 1986년 현재 총 465개인데, 그 중 국·공립대학이 학교 수 101개로 약 28%를 차지하고, 학생 수는 517,144명인데 역시 전체 학생 수 1,879,532명의 약 28%가 된다. 사립대학은 334개로 전체 대학의 약 72%, 학생 수는 1,362,338명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學校數와 學生數에 있어서 그 비율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일본 私立大學의 財政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위의 〈표 5〉에서 보기로 하자.

〈표 5〉는 1983년 현재 일본 사립대학들의 학생 납입금이 대학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표 5〉 일본의 사립대학 교육비 자원 (단위: %)

연	도	학 생 납 입 금	학교법인	기부금	국가및 지방
1950		56.3	34.5	9.1	0.1
1960		41.8	46.1	10.1	2.0
1965		56.8	32.5	8.6	2.1
1970		65.8	18.8	9.5	5.9
1975		54.3	10.0	19.4	16.3
1978		66.2	3.3	8.1	22.4
1983		60.3	10.6	8.6	22.5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日本の 大學財政”, 大學教育, 제40호, p.54.

정부 보조가 22%, 기부금 9% 그리고 재단의 전입금(차입금 포함)이 11%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私立大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政府補助가 1% 이하, 사회의 보조 혹은 기부금 등이 1% 이하인 상태에서 대학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大學 財團이나 設立者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것이 한국의 사립대학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경청할 것이 있으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필자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한 大學을 설립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의 장래를 위한 훌륭한 공헌이요 희생인데, 私立大學의 모든 재정 책임을 財團에게만 내맡겨 두고 政府나 社會의 누구도 관심을 쓰려고 하지 않는 점이다.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대학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人材를 기르는 것은 모두 사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점을 좀더 巨視적으로 보아주는 사회 풍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은 大學 設立者나 財團 運營 責任者의 책임이 결코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닌 文化民族임은 물론이지만, 오늘의 한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20 세기에 우리가 당하고 겪은 歷史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奇蹟이라 해야 옳다. 그러나 여기에서 自足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20 세기의 마지막 10 년을 훌륭히 마무리 짓고 21 세기를 힘차게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다급하고도 큰 문제가 있다. 오늘의 韓國大學들은 21 世紀를 준비할 能力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大學財政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美國 大學 登錄金의 몇 분의 일 밖에 안 되는 등록금이 한국 대학 재정의 80%, 때로는 거의 100%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大學의 위기로,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의 내일을 어렵게 할지도 모를 國家的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지금 最尖端科學에 挑戰해야 하고, 國家經營에 先進國을 앞서는 계획과 實踐力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質·量 면에서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야 하고, 世界 속에서 남을 돕고 남과 어울려 사는 높은 智慧와 기술을 쌓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科學技術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産業 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고,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따라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高級 技術人力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소리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외치는 소리이다. 어디에서 이들 高級頭腦를 양성해야 하는가? 現在 우리나라 大學의 施設과 人力만으로 이러한 호소에 副應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大學教育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지만, 國家財政으로 당장 大學을 크게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不可能한 것을 해내라고 아무리 외쳐도 현재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 일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大學의 분포와 규모 등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私立大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1989 년도 현재 대학의 총 수가 104 개인데, 사립대학이 81 개교이므로 약 78%이고, 학생 수 1,020,771 명에 사립대학 재학생이 773,903 명으로 약 76%이며, 전체 교수 31,675 명에 私立大 교수가 21,718 명이므로 약 69%를 차지한다. 이 같은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私學에 대한 國庫支撥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반드시 改善方法을 모색해야 할 國家的 重大事項이며, 여기에 文敎部 뿐만 아니라 國民 전체의 理解와 協助가 있어야 하

〈표 6〉 우리나라 대학 기관, 학생, 교수 수

구분	1987			1988			1989		
	학교 수	학생 수	교수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수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수 수
국립	22	240,355	8,932	22	240,130	9,311	22	241,341	9,797
공립	1	5,191	150	1	5,353	153	1	5,527	160
사립	80	743,957	19,560	81	758,165	20,421	81	773,903	21,718
계	103	989,503	28,642	104	1,003,648	29,885	104	1,020,771	31,675

자료: 문교통계연보, 1989, pp.26~27.

〈표 7〉 1988년도 연구비 지원 현황

구분	지역	지급건수	연구원수	지급액(천원)
		서울	445	1,164
국·공립 대학	지방	1,062	2,219	4,933,600
	계	1,507	3,383	8,015,600
사립대학	서울	788	1,827	4,565,600
	지방	648	1,384	3,043,800
	계	1,431	3,211	7,609,400
총계		2,938	6,594	15,625,000

자료: 문교통계연보, 1989, pp.776~777.

겠다.

私學에 대한 國庫 지원이 研究費 분야에서도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위의 〈표 7〉에서 볼 수 있다.

〈표 7〉은 1989년도 文敎統計를 기초로 하여 作成한 것인데, 1988년도의 경우 23개 國(公)立大學에 대한 研究費 지원이 80억 원이 넘는 데, 93개 私立大學에 대한 지원은 76억 원이었다. 교수 研究費의 지원에 있어 국립대학 교수와 사립대학 교수를 나누어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때 大學들의 차이에 따라 教授들의 質의 水準이나 研究遂行 能力에 큰 차이를 보이던 時代와는 달리, 이제 모든 교수들이 높아진 質의 水準과 研究意慾으로 연구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 大學이나 文敎當局이 특별한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科學技術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급한 것이 最尖端 技術 분야라는 것이지, 한 나라의 未來는 결코 技術의 發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人文·社會科學의 여러

分野가 함께 先進學問의 水準에 올라가야 비로소 균형있는 國家發展, 본격적인 先進國家가 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科學分野 하나에도 대학이나 국가가 제대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폭 넓은 世界水準의 大學敎育과 研究를 지원하는 일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볼 때 우리가 택할 意味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寄與入學’ 제도의 導入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다른 方法으로도 우리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大學 固有機能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 3. 寄與入學制度 實施의 條件과 基準

大學敎育의 質과 연구의 水準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에 따라 우리의 未來가 결정된다는 時代的 課題 앞에서 오늘의 우리나라 大學들의 열악한 財政 形편을 염려한 大學 敎務處長들은 '89년 7월 全國 大學敎務處長協議會 總會에서 ‘寄與入學’ 제도를 文敎部에 正式으로 건의키로 決定했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 교부처장협의회는 '89년 10월 4일 다음의 5개항이 중심이 된 건의안을 文敎部長官에게 건의하였다.

첫째, 이 제도에는 물질적·금전적 寄與뿐 아니라 비물질적·精神的 기여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 제도에 의하여 大學入學定員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定員外’의 형식이 채택되어야 하고, 그 비율도 최소한으로 하여 정원의 2% 정도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셋째, 이 寄與入學 제도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修學能力을 엄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넷째, 이 제도는 公正하고 合理的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이 엄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제도에 의하여 마련되는 財源은 獎學金과 대학의 教育 및 研究能力을 신장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이 5개 항에는 기여 입학에 관하여 그동안 대학 내·외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한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의 종류, 성격, 형식, 기준, 공정성 그리고 이 제도로 마련되는 財源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여 國民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학 입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국민적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실시에는 대학 당국이나 文敎部의 계획과 공정한 실시 이전에 國民의 理解가 先行的으로 있어야 하겠다. 이 국민적 공감대는 곧 이 제도 실시의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학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未來, 우리의 내일, 국민의 장래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國民感情이 함께 해야만 원래의 취지가 십분 실천될 수 있으며, 그 意義가 살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학과 문교부만이 아니라 言論과 社會 지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政府次元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혹자는 누구나 돈만 내면 기부금 입학으로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拜金思想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全國敎務處長協議會나 大學들은 이 제도가 결코 돈만 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修學能力' 기준이 그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학생만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문교부

나 사회에 오늘의 한국 大學이 과연 이러한 일을 공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대학에 이 일을 맡겨도 되겠는가 하고 염려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러한 反論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이제 100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생 수도 100 만 명을 초과하여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國民에게 염려를 끼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제 大學을 믿어 주어야 하겠다. 大學人 스스로가 보아도 대학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염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韓國 大學은 內的인 변모와 발전을 이룩하여 '기여 입학' 제도와 같은 민감한, 그러나 국가의 來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이 일을 맡고 맡겨 주시던 반드시 國民의 뜻에 맞게 실시되도록 할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다. 부족하다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대학에 부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각 대학의 入學定員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定員外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數도 最小化하여 우선 정원의 2% 이내로 제안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도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학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우수한 대학들은 성적으로는 뽑을 학생의 200%를 선정하고, 그 다음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조건들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100%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학생 선발을 단순히 성적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여 입학 대상 학생들이라도 당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修學能力을 엄정히 평가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곧 미국 대학들에서의 200% 범위에는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寄與入學 혹은 寄附金入學 문제는 대학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敎務處長들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89년의 建議活動이 문교 당국이나 言論 및 國會와 政黨들에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교무처장 대표들이 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건의서를 전달함과 아울러 진지한 論議를 한 것을 비롯하여, 私立大學 理事長들의 모임인 韓國大學法人協議會와 전국 대학 총·학장 협의체인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敎務處長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교무처장들은 주요 대학 총장들과 연석 회의를 거쳐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리고 全國 私立大學 총·학장들은 이 기여 입학 문제를 논의하고 政府 當局에 건의하기 위하여 全體 會議을 가졌으며, 그 결과를 1989년 12월 5일에 문교부장관에게 건의서로 전달했다.

이러한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우리하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基調에 있어서는 言論도 상당한 정도로 그 必要性을 인정하고 여론에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與野 政黨들도 그 當爲性을 인정하고 특히 舊與黨인 民主自由黨은 寄與入學 제도의 실시를 黨論化하여 정부에 요청할 것을 公式로 결정했다. 政治圈에 유례없는 변화를 몰고 온 政黨 統合으로 거대한 與黨으로 등장한 民主自由黨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과감히 실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 寄與入學 제도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政黨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주기 바란다.

이 제도는 微視的 觀點에서 보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를 훌륭히 매듭짓고 희망찬 21세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는 巨視的 안목으로 보는 發想의 大轉換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어느 면이 先進國과 같이 완전히 균형잡힌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쩌면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우리 國民 모두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先進國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이며, 정치가들은 이러한 國民的 認識을 정치적·사회적 現實로 만들 義務를 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理想이며, 동시에 우리 自身의 일이다.

우리나라 大學이 어느 분야보다도 앞서 世界 一流, 世界最一流로 발전하여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未來를 개척하는 일을 先導해야 한다. 그

레야단 우리에게 밝은 21世紀의 來日이 약속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大學은 혼자 힘만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이 글의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大學은 해방 후 지금까지 自由스럽지 못했다. 반드시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行政적으로도 마찬가지이었다. 아직까지도 學生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지극히 細部的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文敎部의 지시와 감독하에 움직여야 하는 大學은 이제 大學入試에 관한 基本的인 문제부터 대학에 맡겨 줄 것을 문교부에 요망한다. 그리고 특히 私立大學들이 등록금 이외의 방법으로 學校 財政을 확보할 수 있는 制度的 틀을 마련해 주는 일을 文敎部가 앞서서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

#### 4. 寄與入學으로 조성되는 財源의 使用

大學 財政을 구성하는 收入 중에서 기여 입학에 의해 조성되는 財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一般經常費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大學의 固有機能을 강화하는 목적에만 쓰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전술한 바 있는 全國 大學敎務處長協議會의 建議書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대학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敎育機能과 研究機能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는 점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필자는 이것을 大學의 2大 固有機能이라 부르고자 한다. 새로 적립되는 基金은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의 強化에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1) 獎學金과 敎育의 普通化

장학금은 그 성질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부모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前者는 뛰어난 優秀集團을 키워내기 위한 學問獎勵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 유형의 장학금 지급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비록 그 數는 적더라도 新進 엘리트

뜨들의 存在가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장래에 指導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認識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後者인데 이것은 教育의 普遍化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大學教育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國家 資源의 效率化·極大化 및 教育機會의 民主化에 이르는 길이다. 국가의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가장 理想的인 것은 西獨과 같이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이 일체 없고, 능력과 의욕을 갖춘 모든 젊은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大學에 진학하는 제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여건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도 이들 젊은이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國家도 도와주지 않고, 社會도 소극적이고, 그렇다고 대학도 혼자 힘으로는 이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어렵다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일이다. 지금까지의 慣行이나 制度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큰 靚靚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大學에 進學하겠다고 나서는 것만도 국가적으로는 어찌된 고마운 일이다. 그들은 教育 받아 일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좋지만, 그것이 모여 우리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無料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도 대학에 다니려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는가? 실제로 그러한 예는 西歐社會에 얼마든지 있다.

아무튼 우리는 大學教育의 精銳化와 普遍化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힘찬 民主社會 건설을 위하여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와 보편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여 입학으로 마련되는 基金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좁은 시각에서 보는 배금주의나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우려는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원의 2% 이내의 기여 입학생들이 내는 基金으로 수만 명의 어려운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염려되는 점들

을 잘 보완해 나가고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의 社會正義에 승服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로서는 富의 건전한 사회적 환원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機能의 強化

20世紀의 마지막 年代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焦眉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모처럼 일어나고 있는 國家的·民族的 隆盛의 好機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나라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명실상부한 先進國으로 진입하는가 그리고 21世紀를 先導하는 책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모든 다른 조건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教育의 성공이며, 특히 大學教育의 質·量 면의 成功이다. 量의인 면의 성공은 대학교육의 普遍化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이를 수 있지만, 質的 成功은 매우 장기적·체계적인 계획과 研究의 水準을 현저히 높이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國民의 教育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羸代的인 國家라 할 수 없다. 熱火같은 教育熱과 知識欲求를 더욱 높이고 충족시켜 國家發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갈 때이다. 西歐의 선진국들 같으면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거의 무상으로 시켜 주는데 나라의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부모들은 모든 회생을 무릅쓰고 자체적으로 나서서 教育立國을 실천하였다.

도절게 어렵던 지난 날에 비하면 현재는 많이 여유가 생긴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量的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外的인 면에서 보는 數值일 뿐 教育投資, 教育 및 研究施設, 教授와 研究人力의 확보, 教育과 研究의 水準 등에서는 先進國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으며, 大學教育 여건은 '세계 最低'라는 지적들이 많다. 부언할 필요도 없이, 이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未來를 目前에 두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認識하여야만 한다. 世紀末이나 21세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將來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세계의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그

원인이 우리의 産業·科學 기술의 落後와 大學 敎育의 質的 低下 등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새 世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大學의 위기를 直視하고 그 活路를 찾는 일에 最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研究와 敎育은 한 나라의 大學이 해야 할 2大 과제이다. 敎育은 다른 나라에서 연구해 놓은 결과를 갖다 쓰더라도 필요한 정도까지 수행해 낼 수 있으나 研究는 그렇지 못하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이 최근 知的 所有權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막대한 物的·人的 투자를 하여 얻는 研究結果를 보호하고 他國에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가 현재의 발전 상태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 길은 과감한 敎育·研究投資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들의 財政 상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 國家의 財政 규모도 적어서 文敎部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21%라는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大學의 研究 기능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가? 微視的 觀點에서만 접근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視點, 말하자면 일종의 發想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한 사물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消極的·否定的인 면 대신에 肯定的·積極的인 면을 주된 觀點으로 보자는 것이다.

앞에서 大學敎育의 普通化를 위하여 장학금을 크게 늘려야 하며, 그 길을 ‘寄與入學’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동일한 論理로 大學의 研究機能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이 當爲論은 이 글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寄與入學 제도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충족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여 입학으로 조성되는 基金의 주된 몫을 연구와 敎育 기능의 강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기여 입학 제도의 도입이 사립대학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것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대학의 研究機能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분야, 어떤 시설, 어떤 人力을 보강해야 하는가 등은 여기에서 詳論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 5. 大學의 自律化

우리나라 大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自由롭지 못했다. 이것은 물론 社會 전체의 民主主義 전통이 약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적지않은 대학들이 국민의 敎育 욕구와 知的 욕구를 충족시키고 人材를 양성하는 일을 하는 중 국민의 지탄을 받고 官의 간섭을 초래할 일들을 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제대로 기초가 없을 때, 無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땅에 이만큼 高等敎育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한 것은 4년제 대학의 78%를 차지하는 私立大學들의 공로로 보아야 마땅하다.

敎育의 主務 관청인 文敎部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너무 관료적이고 大學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60년대초에서 '80년대 후반까지 대학은 감독과 통치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오늘까지도 文敎部는 대학의 敎育과 研究를 장려하고 그 기능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때로는 지시와 감독을 우선적인 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대학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함께 노력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事案이 조금만 복잡할 일이면 여론에 미루고 文敎部는 局外者 같은 지위에 서 있다. 民主國家의 中央部署라면 때로는 여론이 원하는 것이라도 國家利益과 우리의 未來像에 맞지 않으면 國民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理由를 알려 理解를 구하고, 또 때로는 국가 이익과 우리의 미래에 필수적인 일에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그 必要性和 當爲性을 알려 여론의 共感帶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寄與入學’만 하더라도 文敎 당국자들도 個人的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鄭元植 文敎長官도 지난 해 國會의 國政監査에서 “이것은 國民의 여론이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 民主國家의 國家政策에 국민의 理解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嚮방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론에 대학의 實狀을 알리고 우리의 21 세기를 준비하는 意味를 알리는 일을 함이 없이, 高度의 未來 豫測能力과 判斷을 필요로 하는 일을 단순히 여론의 성숙에만 무한정 내맡기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大學과 國家를 위하여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寄與入學 制度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문교부 주관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실시하는 길과 문교부의 묵시적 양해하에 대학이 실시하는 것이다.

기여 입학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여론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文敎部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문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이 제도의 意義를 國民에게 주지시키는 일을 대학들과 함께 앞장서서 해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길 중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잘 해야 후자의 가능성인데 이것도 지나치게 여론의 향방에 신경을 쓰는 문교부로부터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몇 개의 私立大學들이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대학의 책임하에 감행해 볼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大學入試를 각 大學의 自律에 맡기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대학 입시의 일자, 정원, 선발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大學入試의 모든 세부 사항 하나 하나를 全國 大學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文敎部는 대학에 맡겨도 될 일은 하루 속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주기 바란다. 물론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部分的인 현상을 全部와 연결시켜 自立의 試圖를 막는다면 이것 또한 큰 옳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대학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나마 量적으로

팽창하며 成長하는 과정에서 많은 內的 成長도 함께 하였다. 이제 대학 입시는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동시에 그 책임도 맡겨 주기 바란다. 大學이 갈구하고 나라의 장래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大學의 自律化로 大學과 모든 大學人들은 國民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엄숙히 다짐할 수 있다. 결코 大學의 道德性에 흠을 남기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政府 當局이나 國民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大學人들은 깊이 認識하고 있다.

## 6. 맺는 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個人이나 民族에게 있어서도 높은 教育熱과 강한 지식욕 등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한 나라의 융성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지만, 언제라도 그 勢가 약화되고 꺾일 수 있는 것이다. 國民의 이 거창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길을 여는 것은 現代國家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이다.

教育에는 目標과 哲學이 있어야 한다. 현재도 세계 각국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普遍的 民主教育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젊은이들이 능력과 의욕을 갖고 있는 한 均등한 教育機會를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未來를 밝게 해주는 가장 큰 희망의 원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게 高等教育을 받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普遍化를 이룩하여야 한다. 동시에 교육의 秀越性을 더욱 提高하여 우리의 未來를 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教育財源이 國家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고, 大學 자체 또한 혼자서 조달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國家財政으로 私立大學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寄與入學’ 제도를 도입하여 活路를 모색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寄與入學’ 제도를 실시하는 데에는 巨視的 眼目에서 보는 國民的 理解와 決斷이 필요하다.

政府도 나라의 將來를 위하여 이 제도가 필요함을 널리 알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大學에 맡기며 그 결과를 당연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國民의 이해를 얻어 실시될 수 있게 되면, 大學은 이 제도가 우리의 21

세기와 나라의 將來에 반드시 이바지하도록 엄정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大學의 道德性에 조금의 훼손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

〈投稿案内〉

「大學教育」 제46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教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된 글들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 ① 論 壇
  - ② 教授談論
  -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90년 5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